

2019.07.03

NO.7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Interview

‘가메라 3부작’ 가네코 슈스케 감독

People

〈주디와 펀치의 위험한 관계〉 미라 폴크스 감독

〈야수〉 안드레스 카이저 감독

멋진 신세계!

VR 특별전
‘비욘드 리얼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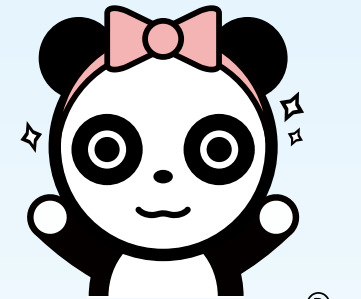


Q: 뱃살 슬리미로 왜 이렇게 뱃살이 많이 빠지나요?

근적외선 LED를 통한 복부지방관리



Healing with
HELLOPANDA®



"Beautiful People, Inside and Outside"



HELLOPANDA®
www.hellopanda.co.kr



event

10:00~20:00

스탬프 이벤트

BIFAN 굿즈샵, 안내데스크

10:00~18:00

로봇 이벤트 존

부천시청 잔디광장 내
컨테이너부스

15:00~18:00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
부천시청 잔디광장

15:00~19:00

판타지아 이벤트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

15:00~19:00

너의 목소리가 들려[소리함]
부천시청 잔디광장

17:00

메가토크 '괴수 특별전:
지구 정복 괴수전'
CGV소풍 4관

표지사진 오계욱

staff

발행인	배경록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김성훈 송경원 임수연
객원기자	이나경 김용진
사진	오계욱
사진객원	박종덕
디자인	김차인에 모보형
제작총괄	이지영
제작	이준용
인쇄	(주)에스제이씨성전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의 사무국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신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리를 드러머 걸〉 촬영기

7월2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부천아트벙커B39 MMH홀에서 '김우형, 〈리를 드러머 걸〉 촬영의 모든 것' 강연이 진행됐다. 한국 촬영감독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TV크래프트 어워즈(BAFTA)에서 촬영, 조명상을 받은 김우형 촬영감독과 함께 박찬욱 감독의 첫 BBC 드라마 〈리를 드러머 걸〉의 촬영 준비부터 진행 과정 전반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글 이나경 객원기자·사진 오계욱



〈능력소녀〉의 김수영 감독.

저예산 장르영화 만들기의 A to Z

'실전! 저예산 장르영화 제작 아카데미'가

7월1일과 2일 양일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일 오후 12시

부터 저녁 8시까지 세 개의 세션이 연달아 진행됐다. 런던 SF 필름 페스티벌 루이스 세이비 감독의 〈A.I.가 쓴 시나리오 영화 및 SF챌린지 강의〉는 SF 저예산 영화에 대한 세미나였고, 페드로 크리스티아니 감독의 〈단편에서 장편만들기〉와 〈저예산의 한계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는 저예산 호러영화를 장편으로 확장한 자신의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2일 오후 3시45분부터는 올해 출범한 칸국제영화제의 판타스틱 장르 활성화 프로그램 '판타스틱 7'의 선정작이었던 〈능력소녀〉의 김수영 감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저예산 호러 영화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마이너' 정서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극복해간 과정, 2년 전 부천에서 단편으로 상영된 바 있던 〈능력소녀〉가 어떻게 장편 프로젝트로 칸 마켓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지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다. 글 임수연·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괴수가 부천을 정복한 날

메가토크 '괴수 특별전: 지구 정복 괴수전'이 열린다. 7월3일 수요일 저녁 5시 CGV 소풍 4관에서 〈가메라3-사진 이리스의 각성〉 상영 후 진행되는 이번 메가토크에는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을 연출한 가네코 슈스케 감독이 참석해 일본 괴수물의 세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할리우드 괴수영화에 꾸준히 영향을 준 일본 괴수영화의 매력을 나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BIFAN을 사랑하는 관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 마련한 소통창,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소리함]'. 영화제 참여 만족도, 개선방안 등의 항목을 작성하는 간단한 설문지로 6월28일부터 7월7일(주말 11:00~18:00, 주중 15:00~19:00)까지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의 행사데스크에서 작성할 수 있다. 설문조사 후 받을 수 있는 선물은 덤. 관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단편영화 배급 활성화 포럼 현장

7월2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세미나실에서 BIFAN과 한국단편영화배급사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단편: 단편을 판타스틱하게!' 포럼이 열렸다. 행사의 1부에는 홍성운 센트럴파크 대표, 백재호·채익석 감독이 단편영화의 출품 요강 및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목충헌 Fipple 대표, 박래경 자체휴 강시네마 대표, 권다솜 극장판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서서 단편영화 상영기획, 상영공간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목충헌 대표는 "아트마켓, 오리지널 인터뷰 등을 기획하여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 했다"고 했고, 박래경 대표는 "1인 가구가 많은 신림동의 특성상 혼자 관람을 하는 관객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간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마무리했다. 글 이나경 객원기자·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BIFAN 人

“더 많은 관객이 게스트들을 만났으면”

나지경 초청팀 게스트 코디네이터



말은 업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산업프로그램 NAFF, 코리아나우, 뉴미디어 부문의 해외 게스트 초청을 담당한다. 지금은 호텔에 상주하며 그들의 편의를 돕는다. 초청 업무는 처음인데. 아시아, 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200명 정도가 왔다. 그럼에도 문화적 차이는 잘 못 느꼈다.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다. 종종 게스트들이 고맙다며 선물을 건넬 때는 내가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게스트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온다. 그들과의 스케줄 조율은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런 만큼 준비된 행사에 많은 관객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김용진 객원기자·사진 오계욱

BIFAN 리멤버

부천은 남자가 많이 온다는 편견을 버려!

순화정·문화평론가

올해 메가토크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추억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웃음) 특별전 '웃기는 여자들, 시끄럽고 근사한'의 메가토크에 온 관객은 95%가 여성이었다. 특히 〈고스트버스터즈〉 상영 이후 (스브스 뉴스)의 재재 PD와의 토크는 기존 부천 관객이 아닌 듯한 분도 많이 왔는데, 20대부터 30대 초중반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재재 PD의 팬들이 객석에서 현수막을 흔들고, 사인 줄도 2~30m 정도 되더라. 그 동안 영화제에서 진행한 토크 중 가장 독특한 시간이었다.

괴수영화의 영혼을 발견하다

가네코 슈스케 감독

가네코 슈스케 감독은 이른바 성공한 덕후다. 괴수영화의 오랜 팬이었던 그는 1990년대 일본 괴수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는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을 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부천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의외로 느껴질 만큼 BIFAN에 딱 어울리는 가네코 슈스케 감독은 늦은 만큼 올해 BIFAN에서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부천 초이스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었을 뿐 아니라 괴수 특별전에서 '가메라 3부작'을 상영하고 최근작 <백투더 아이돌>(2017)도 한국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다. “영화가 꿈이라면 BIFAN의 영화들은 즐거운 악몽”이라는 가네코 슈스케 감독을 만나 장르영화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물었다.

가메라 피규어를 구하지 못해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고질라>(1998)를 대신 들고 왔다. 표지 촬영 감사드린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괴수영화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감독님의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CG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에 괴수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대폭발 시대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웃음) 롤랜드 에머리히의 <고질라>를 보고 미국인들이 고질라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 때만 해도 엄청 크고 빠른 도마뱀 정도였는데 최근엔 영어로 '카이주'라고 번역할 만큼 괴수가 일반화 되고 있다. 드디어 괴수물의 영혼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은 단순히 괴수들 간의 대결에서 벗어나 인간의 시점에서 괴수를 그렸다는 점이 혁신적이었다.

가렛 에드워즈의 <고질라>(2014)의 경우 내가 연출한 <가메라-대괴수 공중결전>(1995), <가메라2-레기온 내습>(1996)의 스토리 전개와 유사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좋아한다.(웃음) 나도 어릴 적 괴수영화를 보고 자랐고 그 영향이 지금 영화들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괴수가 싸우는 걸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괴수가 등장하고 싸우는 것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최근 할리우드의 괴수영화들을 보면 장르의 소비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더 요란한 축제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물량을 쏟아 붓는 게 상업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겠지만 내가 애정 하는 방향은 아니다.

'일본 괴수영화사전'을 만들었을 정도로 열혈 팬이시다. 당신이 연출한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이 쇼와 시대 가메라 시리즈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특색은

무엇인가.

쇼와 버전의 가메라는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었다. 나도 아이일 때 폭 빠져서 봤다. 성인이 된 후 가메라를 연출할 기회가 주어 졌을 땐 '가메라'를 보고 자란 사람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당시 보면서 들었던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SF의 일부로써 특촬물의 기술적 완성도를 올리고 싶었다.

일본 괴수영화의 양대 산맥인 고지라와 가메라를 둘 다 찍은 유일한 감독이다. 비교하자면 <스타워즈>와 <스타트렉>을 동시에 연출한 셈인데.

가메라와 고지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가메라는 처음에는 당하다가 되갚아준다. 반면 고지라는 처음부터 강력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파괴의 신이다. 가메라는 히어로의 정석을 따라간다면 고지라는 안티히어로에 가깝다.

오타쿠 출신 영화감독 1세대로 불린다. 사랑하는 대상을 직접 만든다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고충도 있을 텐데.

<고지라 모스라 킹기도라 대괴수총공격>(2001)을 만든 후 이젠 내가 괴수영화의 팬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팬이었을 때의 기분은 여전히 기억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괴수를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몰두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 뒤론 팬으로써 온전히 즐길 수가 없다. 데뷔작 <우노 고이치로의 젓은 정사>(1984)부터 원작을 두고 재해석 하는 방식으로 연출해왔다. 지금까지는 그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이젠 나의 인생을 반영한 영화를 시작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글 송경원 · 사진 오계옥



“문명은 공포다”

〈아수〉의 안드레스 카이저 감독

안드레스 카이저는 비관주의자다. 그에게 문명이란 계란껍질처럼 취약한 것이다. “단단해 보이는 문명의 심부에는 수면 밑에 잠긴 무의식과 같은 것이 있다. 나는 그게 언젠가 우릴 덮쳐올까 두렵다.” 공포가 그를 카메라를 통한 정신분석으로 이끌었다. 영화 속 늑대소년들을 거두는 수도승의 저변에는 유년기 트라우마와 성적 도착이 어지럽게 얹혀 있다. 왜 수도승인가? 종교는 문명의 금지탐이기 때문이다. 감독은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신자는 아니지만 스펙터클한 종교의식들에 관심이 많다. “종교의 상징이나 의식들은 인류학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자신의 비관론을 관객과 공유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사실성을 확보하고 싶었다. “기성배우를 고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적 연기지도를 배제했다.” 늑대소년들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일본의 무용 ‘부토’를 배워야만 했다. 죽음은 에로스와 함께 가장 원초적 충동이다. “순수영화란 설명되지 않는 감각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명 바깥의 것을 거두어 공포를 환기하는 것. 그에게 이것이 영화다.

글 김용진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정치적인 것은 이차적인 요소다”

〈주디와 편치의 이상한 관계〉 미라 폴크스 감독

〈주디와 편치의 이상한 관계〉는 17세기 시사이드 마을에서 꼭두각시 인형극을 하는 부부, 주디(미아 바시코프스카)와 편치(데이먼 헤리먼)의 관계 역전을 다룬다. 영화의 제목은 영국의 오래된 전통 인형극 〈편치와 주디〉를 뒤집은 것이다. 미라 폴크스 감독은 “여성혐오와 폭력성이 전면에 부각된 이 작품이 어떻게 어린이가 보는 인형극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는지 궁금했다”고, 재주는 주디가 부리고, 명성은 편치가 누리던 구도는 남편에게 맞아 죽을 뻔한 주디가 복수를 위해 마을로 돌아오면서 뒤집힌다. “원래 폭력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았다. 역사적으로 그 폭력은 여성을 향한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작품도 젠더 메시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외된 계층과 인종 · 장애 등 차별 이슈도 함께 다루고 싶었다.” 이렇듯 뚜렷한 주제 의식이 감지되지만, 감독은 “정치적인 것은 이차적인 요소고,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페미니즘이라는 레이어를 걷어내고서도, 즐거운 영화적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영화를 만드는 여성으로 살아가기 흥미로운 시기인 것 같다.” 글 임수연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Premium Health Beverage



World Sales No. 1 Brand OKF 알로에베라킹

OKF는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전세계 165여 개국에 약 750여 종의 음료를 생산, 수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음료 수출 1위 기업입니다. 1997년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출시된 OKF의 Aloe Vera King은 알로에 음료의 기준이자 효시로 알로에음료 시장 점유율 76%의 World Sales No. 1 브랜드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에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 및 산업포장 수상을 계기로 2017년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이마트 등 대형 유통 채널과 GS25 등 국내 5대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대명 리조트 등의 특수 유통채널과 위메프와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활발하게 판매 중입니다. 앞으로도 OKF는 세계 1등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인의 건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okfcorp

@okfcorp.hq.korea

blog.naver.com/aloeveraking

youtube.com/OKFcorporation

www.OKF.kr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General 🅗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BG 부천체육관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A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BU3 CGV부천 3관 BU4 CGV부천 4관 BU5 CGV부천 5관 BU6 CGV부천 6관 BU7 CGV부천 7관 BU8 CGV부천 8관 S02 CGV소풍 2관 S03 CGV소풍 3관 S04 CGV소풍 4관 S05 CGV소풍 5관 S06 CGV소풍 6관 MM 한국만화박물관



주디와 펀치의 위험한 관계

Judy and Punch

미라 폴크스 | 오스트레일리아 | 2019년 | 105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4 S03 14:00

17세기, 시사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근처에 바다는 없는 어느 마을. 주디(미아 바시코프스카)와 펀치(데이먼 헤리먼)는 꼭 두각시 인형극을 하는 부부다. 자신이 세계 최고의 인형극 공연자라고 자부하는 펀치가 무대 위의 스타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능을 펼치는 것은 주디쪽이다. 마치 펀치만의 공연인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주디는 자신의 이름도 함께 내세웠으면 하는 소망을 내비치지만, 오만한 펀치는 그럴 마음이 없다. 어느 날 술에 취한 펀치가 아기를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주디에게 이 사실을 들킨 펀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하고, 자신의 과오와 그간의 외도를 동시에 덮기 위해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린다. 숲속에 숨어 살던 부적응자 무리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진 주디가 복수심을 안고 마을에 돌아오는 것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주류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과 주디의 연합은 단순한 복수극 이상의 테마를 담는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여자들이 '마녀'라 낙인찍혀 죽음에 이르던 시대를 배경으로 자경단 모티브를 흥미롭게 활용했다. 스테디캠을 적절히 활용해 생동감을 살린 연출, <옥자>(2017)에도 참여했던 켄마 번스 음악감독의 스코어가 블랙코미디 장르에 성공적으로 복무하며 극의 경쾌한 리듬을 견인한다. <바바дук>(2014)의 제니퍼 켄트에 이어 주목할 만한 호주 여성 감독의 등장.

임수연

컨덕트

The Soul Conductor

일리아 막시모프 | 러시아 | 2018년 | 89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7 S04 13:00



유령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소녀 카티아는 어느 날 소년 안톤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카티아는 놀라서 도망치지만 안톤은 반드시 카티아를 찾아낼 것이라는 말을 남긴다. 시간이 흐른 후 불행한 사고로 카티아의 부모님이 죽고 쌍둥이 언니가 실종된다. 카티아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환상과 현실을 오가며 언니의 단서를 찾아나간다. 한편 보육시설에서 자란 안톤은 경찰이 되어 나타난다. 안톤은 실종된 언니를 찾는 카티아를 알아보고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한다. TV 드라마를 통해 경력을 쌓은 일리아 막시모프 감독의 데뷔작 <컨덕트>는 감각적이고 신비로운 판타지 호러다. 유령을 보는 여인이란 소재와 수사물의 결합 자체는 익숙하지만 할리우드산 호러와는 다른 독특한 접근 방식이 눈에 띈다. 점프 스케어 등 단순한 쇼크에 기대지 않고 현실과 환상이 겹쳐지는 지점을 강렬하고 아름답게 그려나간다. 아날로그의 질감을 충분히 살린 기발한 특수효과로 가득하다.

송경원

더 룸

The Room

크리스티앙 볼크만 |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 2019년 | 100분 |

부천 초이스: 장편

7.4 BU6 17:00



화가 매트와 번역가 케이트는 부부다. 외딴곳에 이사 온 이들은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어 사람을 불러보지만, 수십 년 전 이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끔찍한 사실만 알게 된다. 하지만 뜯어진 벽지 너머 숨겨진 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만들어주는 마법을 부린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부부는 두려움보다 욕망이 앞서게 된다. 급기야 부부는 아이를 갖게 해 달라는 소원까지 빈다. 하지만 집을 벗어나면 방이 준 선물이 전부 가루가 돼 사라지고, 어렵게 가진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면 순식간에 나이를 먹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더 룸>은 가장 무서운 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라는 테마를 독창적인 스토리로 풀어내는 영화다. 대부분의 사건이 저택 안 혹은 그 인근에서 벌어지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이 돋보인다.

임수연

야간근무자

The Night Shifter

데니스 하말료 | 브라질 | 2018년 | 110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3 BU3 17:00 7.7 S02 21:00



심령물이라고 해야 할까, 치정물이라고 해야 할까? 수식할 마땅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야간근무자>는 산 자의 질투와 죽은 자의 원한이 뒤얹힌 독특한 난장극이다. 영안소에서 일하는 스테니오는 시체와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섬뜩한 추파에도 그는 무덤덤할 뿐이다. 냉소적인 아내와 엇나가기만 하는 아들. 그의 삶을 짓누르는 건 시체들이 아니라 자신을 멸시하는 가족이다. 고된 일상에 균열이 가는 건 스테니오가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복수하기로 결심한 그는 우연히 시체에게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아내의 정부를 살해하려 한다. 그러나 그 복수는 뜻밖의 파국으로 이어지고, 지옥의 법도는 죽음의 세계에서 나온 정보를 산자의 영역에서 유통시킨 죄를 묻기 시작한다.

김용진 객원기자

가상현실 여행 안내서

BIFAN 비온드 리얼리티 추천작 6

올해 BIFAN이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선보이는 비온드 리얼리티(Beyond Reality) 섹션의 VR 작품들은 현재 전세계 VR 업계가 뉴미디어 기술이 지닌 어떤 특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다. 지난해 초청작에 비해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작품, 매체의 한계를 딛고 다양한 크로스오버에 도전하는 작품도 있다. 그중 가장 혁신적인 방식으로 VR의 매체 특징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작품을 소개한다. 참고로 올해의 VR 작품들은 개별 작품의 퀄리티 뿐만 아니라 관람 방식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다. 아직 VR 작품을 보지 않은 관객이라면, 그리고 부천아트벙커B39에 가지 않은 관객이라면, 꼭 한 번 방문해 전세계가 직면한 사회문제와 자연의 아름다움, 우주의 신비 등을 한 자리에서 모두 체험해 보길 권한다.



〈스피어스 3부작〉Atlas V 특별전

총 3부작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 '우주의 코러스', '사공간의 노래', '창백한 푸른 점'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단편 모음이다. 인간이 직접 볼 수 없는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일반적인 상상도가 아니라 실제 우주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만져보고 들어볼 수 있는 작품이다. 각 단편이 밀리 바비 브라운, 제시카 차스테인, 패티 스미스의 내레이션으로 우주 탄생과 별들의 소멸, 행성이 내뿜는 멜로디 등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국내 버전은 배우 한예리, 김규리, 가수 김윤아가 더빙을 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의 마이클 스테인과 카일릭스 음악 감독이 참여해 별들이 뿜어내는 음악을 들려준다. 내가 직접 우주를 만지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기분이 들 것이다.



〈글루미 아이즈 파트1〉Atlas V 특별전

1980년대를 배경으로 좀비와 보통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꼬마 좀비 글루미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좀비 사냥꾼이란 존재들이 위협하는 가운데, 글루미는 자신이 다른 좀비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 글루미가 자신과는 다른 소녀 네나와 함께 태양조차 인간을 향해 빛을 내는 게 피곤해진 세계 속에서 사랑을 꿈꾸게 된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경험하는 스토리텔링으로서의 매체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든 작품이다. 공간을 넓게 펼쳐 쓰면서 시야각을 고려한 컷개념의 무대 이동, 눈높이에 따른 몰입감의 차이, 〈아르덴즈 웨이크〉〈배틀스카〉와 같은 다른 우수한 VR 작품들의 장단점을 적절히 보완, 발전시켰다. 빨리 2편이 보고 싶어 질 것이다.



〈어나더 드림〉해외 VR 특별전

이집트의 한 레즈비언 커플이 겪게 되는 슬프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를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집트의 LGBTQ 커뮤니티 사람들은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백래시에 직면한다. 이후 네덜란드 등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LGBTQ 난민들이 2009년 이후 400프로나 증가한데 따른 현실고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관객은 직접 시각적인 정보와 다양한 음성 정보 사이를 직접 탐색해볼 수 있으며, 게임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새로운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의 세계를 경험해볼 수 있다. 〈강제 이주 시대의 퀴어〉라는 주제의 시리즈물 중 두 번째로 제작된 작품이다. 또한, 관람 이후 관객의 변화까지도 염려할 만큼 VR이 지닌 여러 특징을 세심하게 활용하고 있다.



〈나인 VR: 날 만나러 와요〉한국 VR 특별전

tVN 드라마 〈나인: 아홉번의 시간여행〉의 스펀오프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관람 부스에 들어가면 관객이 직접 과거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선택해서 각각 두 편을 감상할 수 있다. 미래의 나 시점에서는 과거로 인해 바뀌어 버리는 현재, 과거의 나 시점에서는 미처 몰랐던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을 되짚어볼 수 있도록 짜여 있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관람 전에 약간의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두 명의 관객이 동시에 감상하게 되면 서로의 행동이 상대의 작품에 영향을 끼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방 안에서 일종의 미션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요소도 담겨 있는 만큼, 다각도로 인터랙티브 요소를 배치하는데 고심한 작품이다. 실제 드라마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소품들이 공간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너의 생각을 비워봐〉한국 VR 특별전

르네 마그리트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각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다. 관객이 플레이를 시작하면, 내가 안드로이드 복제인간 모구레토와 함께 마그리트의 작품 세계를 상징하는 4개의 섬을 여행하게 된다는 이야기. 각각의 섬은 마그리트 작품세계의 주요 배경이거나 혹은 키워드의 모음이거나 혹은 그의 사상을 느껴볼 수 있는 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공간에서 사용자는 간단한 몇 가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것은 모두 마그리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VR 버전의 마그리트 입문서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가상 공간 안에서 관객이 느낄 시간의 흐름에 대해 고민한 설계가 인상적이다. 엔딩에 다다랐을 때 좁은 방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벽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어 보길 추천한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애프터 이미지 포 투모로우〉가오송 VR 필름 랩 특별전

올해 BIFAN에 출품한 VR 작품 가운데 가장 종합예술에 가까운 작품이다. 영상과 공연을 접목시켜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시도를 한다. 또한, 선형적인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극영화 스타일의 작품도 아니다. '애프터라이프 메모리 트러스트'라는 일종의 저장공간이 존재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살펴볼 세 가지 기억을 고르게 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인가. 이러한 추상적인 관념과 이미지를 VR의 매체 특징에 걸맞은 공간과 움직임으로 형상화하는 작품이다. 인간의 추억을 클라우드와 같은 저장공간에 업로드하면 그것이 영원성을 획득하게 되는가, 혹은 그 기억은 영원할 가치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일종의 메타픽션 영화라고 부를 수 있다. 글 김현수 · 사진 박종덕

	1	2	3	4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601 11:00 ~ 12:58 장화, 홍련 A Tale of Two Sisters 118min ⑫	614 14:00 ~ 15:59 고비의 전설 The Legend of Gobi 119min ㉔	627 17:00 ~ 19:00 위 아 리틀 좀비 We Are Little Zombies 120min ㉔	640 20:00 ~ 21:33 GV 30년만의 재회 Come to Daddy 93min ⑱
MM Korea Manhwa Museum	602 11:00 ~ 12:37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Memento Mori 97min ⑫	615 14:00 ~ 15:15 별의 정원 Astro Gardener 75min ㉔	628 17:00 ~ 18:38 GV 나만 없어 고양이 Hello, My Cat 98min ㉔	641 20:00 ~ 21:42 인비저블 워트니스 The Invisible Witness 102min ⑮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603 11:00 ~ 12:21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But I'm a Cheerleader 81min ⑮	616 14:00 ~ 15:45 미지왕 Ambiguous Man 105min ⑱	629 17:00 ~ 18:31 단편 걸작선 1 Short Films 1 91min ⑮	642 20:00 ~ 20:36 GV 푸른언덕 The Blue Hill 36min ㉔
SO2 CGV Sopoong 2	604 11:00 ~ 12:37 단편 걸작선 5 Short Films 5 97min ⑮	617 14:00 ~ 15:20 단편 걸작선 8 Short Films 8 80min ⑮	630 17:00 ~ 18:44 더티 갓 Dirty God 104min ⑮	643 20:00 ~ 21:51 GV 첫사랑 First Love 111min ⑫
SO3 CGV Sopoong 3	605 11:00 ~ 12:55 이총의 악당 Villain & Widow 115min ⑮	618 14:00 ~ 15:32 두 개의 영혼 Walk with Me 92min ⑫	631 17:00 ~ 18:30 더 클리닝 레이디 The Cleaning Lady 90min ⑱	644 20:00 ~ 21:46 에어포칼립스 Airpocalypse 106min ㉔
SO4 CGV Sopoong 4	606 11:00 ~ 12:36 가메라 2 - 대괴수 공중 격전 Gamera: The Guardian of the Universe 96min ㉔	619 14:00 ~ 15:39 가메라 2 - 레기온 내습 Gamera 2: Assault of the Legion 99min ㉔	632 17:00 ~ 18:48 ● 가메라 3 - 사신 이리스의 각성 + 메가토크 Gamera 3: Revenge of Iris 108min ㉔	
SO5 CGV Sopoong 5	607 11:00 ~ 12:10 단편 걸작선 11 Short Films 11 70min ⑱	620 14:00 ~ 15:27 만리키 MANRIKI 87min ⑱	633 17:00 ~ 18:42 하늘의 모든 신들 All the Gods in the Sky 102min ⑱	645 20:00 ~ 22:48 잔시의 여왕 Manikarnika: The Queen of Jhansi 168min ㉔
SO6 CGV Sopoong 6	608 11:00 ~ 12:28 이색지대 Westworld 88min ⑮	621 14:00 ~ 15:52 소름 Gooseflesh 112min ⑱		646 20:00 ~ 21:40 3인조 Trio 100min ⑱
BU3 CGV Bucheon 3	609 11:00 ~ 12:33 메모리: 걸작 에이리언의 기원 Memory: The Origins of Alien 93min ⑫	622 14:00 ~ 15:39 사다코 Sadako 99min ⑫	635 17:00 ~ 18:50 야간근무자 The Night Shifter 110min ⑮	647 20:00 ~ 21:22 나는 악마를 가졌다 I Trapped the Devil 82min ⑮
BU4 CGV Bucheon 4	610 11:00 ~ 12:45 G 아페어 G Affairs 105min ⑱	623 14:00 ~ 15:32 단편 걸작선 3 Short Films 3 92min ⑮	636 17:00 ~ 18:21 굴레: 소녀의 눈 Abyss: The Girl's Eyes 81min ⑮	648 20:00 ~ 21:30 GV 아수라 Achoura 90min ⑫
BU5 CGV Bucheon 5	611 11:00 ~ 12:25 코리아 판타스틱: 단편 1 Korean Fantastic: Shorts 1 85min ⑮	624 14:00 ~ 15:43 학교는 끝났다 School's Out 103min ⑫	637 17:00 ~ 18:41 달링 Darlin' 101min ⑮	649 20:00 ~ 21:19 단편 걸작선 10 Short Films 10 79min ⑮
BU6 CGV Bucheon 6	612 11:00 ~ 12:23 초의태인간 Mimicry Freaks 83min ⑱	625 14:00 ~ 15:40 GV 귀신 상담사 Eerie 100min ⑫	638 17:00 ~ 18:44 에리카 38 Erica 38 104min ⑮	650 20:00 ~ 21:50 오버로드 Overlord 110min ⑱
BU8 CGV Bucheon 8	613 11:00 ~ 12:08 밀어서 잠속해제 Slide to Unlock 68min ⑮	626 14:00 ~ 15:36 단편 걸작선 7 Short Films 7 96min ⑮	639 17:00 ~ 19:58 GV 트랩: 디렉터스 컷 Trap: Director's Cut 178min ⑱	

● Event

Rate

전체 관람가	General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보다 효율적인 혁신이 필요할 때

THINK



ON.

전 세계 전력용 반도체의 선도 기업



We create the products and resources to help make your solution as efficient and reliable as possible. When you are thinking of Energy Efficient Innovations, Think ON.

WWW.ONSEMI.COM

(구. 페어차일드 코리아 반도체(주))

ON Semiconductor®



땅의 가치를 하늘 끝까지

땅이 하늘만큼 크다면 우리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땅이 하늘만큼 높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정된 땅의 가치를 하늘처럼 크고 높게 바꾸는 일!
MKB개발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지역 개발과 부동산 가치 창출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 값진 성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Make Korea Broader - MKB개발



(주)엠케이비개발
MKB DEVELOPMENT CO., LTD.



(주)바이엔셀개발
BNS DEVELOPMENT CO., LTD.